

# 한얼님 그림이 사람 노릇

- 평화통일의 길



박영호 (다석사상연구회 회장)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말이 있다. 물 마실 때 물의 근원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사람 몸의 7할이 물이라 하루에도 2리터 가까운 물을 마셔야 한다. 그렇게 고마운 물이니 물 마실 때면 물의 근원을 생각하며 고마워하자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샘물을 약수라고 하면서 고맙게 마셨다. 요즘 사람들은 물의 근원을 수도꼭지로 아는 것 같다. 예로부터 절의 스님들은 물의 근원을 바다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절에 불이 나는 것을 막자는 생각으로 바다에서 얻는 소금을 항아리에 담아 절집 기둥뿌리 땅속에 묻었다고 한다. 그것으로 불조심의 경계심을 높였을 것이다. 그보다는 물의 근원을 바다에까지 찾아간 것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물의 근원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것이다. 내 생명의 근원을 나를 낳으신 어머니로 아는 것은 물의 근원을 수도꼭지로 아는 것과 같이 열고도 얇은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내 생명의 근원은 '온통인 우주'이

다. 이 우주가 없으면 사람의 선조조차도 있을 수 없다. 이 나라 국조(國祖)이신 단군께서는 사람이 우주의 소산(所産)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단군 자신의 비릇을 '하늘을 연 날(開天節)'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단군 할아버지 후손들이 단군 할아버지의 한얼 뜻을 바로 잊지 못하고 가족 지상주의(至上主義)에 빠져 오늘에 이르렀다. 하긴 중국 사람들은 홍자성(洪自誠)이 지은 책, 뿌리를 캐는 말쑥의 『채근담(菜根譚)』을 '나물 뿌리 맛(菜根譚)'이라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채근담에는 나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얼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똑똑하게 밝히는 말을 하였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근원인 한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끊을 때 죽는 것이지 사람의 얼이 몸에서 떠날 때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이 한얼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외면하면 내 존재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내 존재의 근원인 한얼님을 찾아야 한다. 사람은 나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한얼님께 온통 맡길 때 난 얼로 한얼님처럼 '온통'이 된다.”

(마하트마 간디, 『날마다의 생각』)

예수의 제자 한 사람이 스승인 예수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여가를 달라고 하였다. 예수가 이르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마태 8:22)고 하였다.

이로써 예수도 한얼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는 산자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한얼님이 주신 얼나를 참나로 깨달아 얼나로 한얼님 아들 노릇을 한 이라야 참산이로 보신 것을 알 수 있다.

류영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이 우주의 비릇인 맨침[太初]을 잘 모른다. 우리 사람은 전체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며 완전 속에 속한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라 전체요, 완전인 한얼님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전체요, 완전인 한얼님을 그리워한다. 태초요, 영원인 한얼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한얼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참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다.

‘우리가 왜 있나? 이 까닭을 알려고 하면 참 어렵다. 내가 있는 까닭을 알자면 절대인 한얼님 아버지에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모른다. 우리의 머리 위에 한얼님을 이고서 거룩한 생각을 피워야지 다른 생각을 할 것 없다. 한얼님을 뚜렷이 할 것과 한얼님 아들로 뚜렷할 일이다. 우리 사람의

값어치가 무언가?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려도 한얼님의 얼로 한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얼나라에서 떨어진 한얼님 아들이란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얼님 아버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한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다. 한얼님을 섬기는 데는 물질이 안 든다. 한얼님이 아버지임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다. 안 잊어버린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으로 곧 정신의 일이다. 우주시며 우주의 정신이신 한얼님을 내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임을 깨닫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다. 한얼님을 그리며 생각하는 것이 정신이 위로 오르는 것이다. 한얼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요, 명상이다. 기도는 내 생각이 한얼님께로 피어올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한얼님의 뜻을 좇아 한얼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생각은 참된 것이다. 몸 삶이 덧없어도 얼 삶은 영원하다.”

(류영모, 『다석어록』)

마하트마 간디는 한얼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는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생각 없는 삶은 저 짐승과 같다.

(A thoughtless life is like that of beast)”

(마하트마 간디, 『날마다의 생각』)

사람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깊은 생각을 못하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뜻밖에 많다. 그야말로 생물학자들의 말처럼 털없는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인격은 한얼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아들[얼나]의 자격을 갖추겠다는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 피와 살로 된 몸을 지  
 닌 짐승인 사람이 개나 돼지와 다른 것은 한얼님  
 하고 교통하는 일을 가졌다는 것밖에는 없다."  
 (류영모, 『다석어록』)

수성(獸性)의 유인원(類人猿) 시대가 백 만년이  
 나 더 내려오다가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이 못  
 되는 시대에 영성(靈性)의 성인(聖人) 시대가 열렸  
 다.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이 시대를 '도추(道樞,  
 axial age)의 시대'라 이름하였다. 이때 인도의 우파  
 니샤드의 신비주의자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석가 붓다,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소크  
 라테스, 예수가 대표적인 영성인들 이다. 이들 영  
 성인들의 사상적인 특색은 삼독(三毒)의 제나(ego)  
 를 죽인 인화(仁和)의 정신과 한얼님을 사모하는  
 성숙(成熟)의 정신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생에 있어 성공의 참된 증표는 그 사람  
 의 마음속에 부드러움과 성숙함이 자람이다.  
 (The true mark of success in life is the growth of  
 tenderness and maturity in a man.)"  
 (마하트마 간디, 『날마다의 명상』)

이제라도 우리가 만나면 싸우는 창과(戈)를 둘  
 붙인 아(我)가 아닌, 서로 소통하는 오(吾)의 사람이  
 되자면 옛 성현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전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책[고전]을 읽  
 지 않는다. 고전을 읽어 정신적으로 온고지신(溫故  
 知新)하는 국민이 많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류영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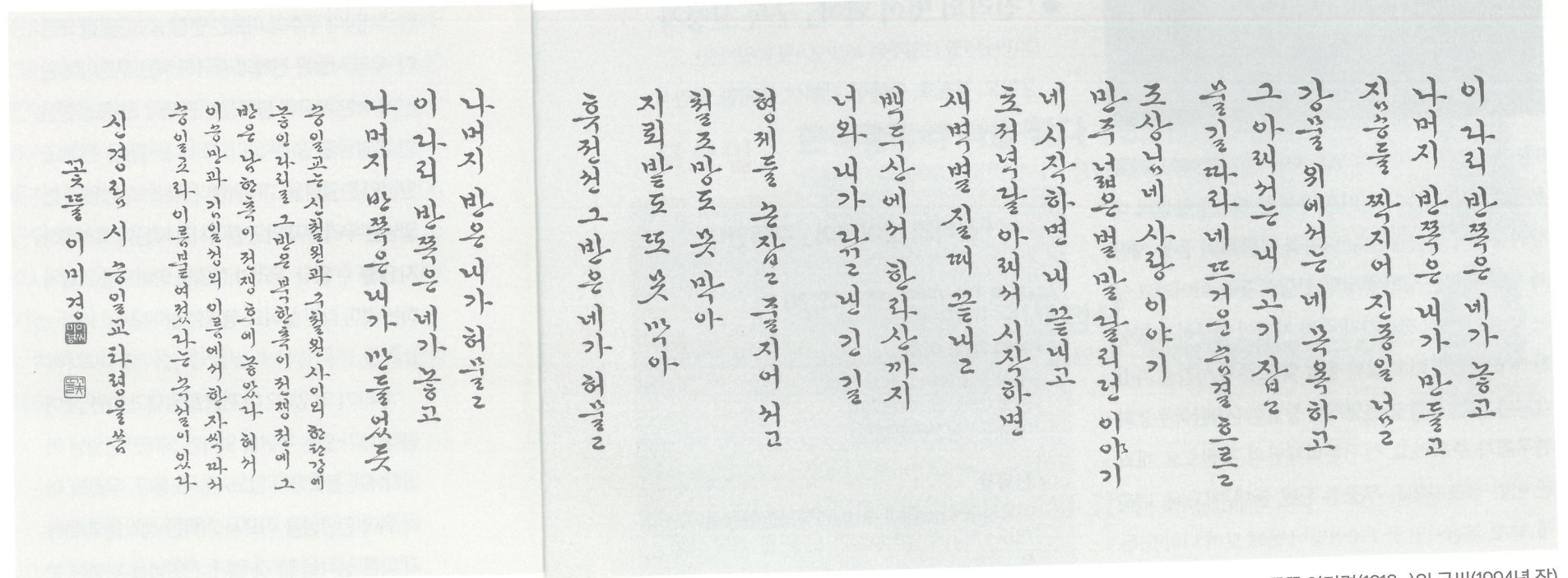
의 말이다.

"무슨 말인지 모를 테지만 젊었을 때가 좋다.  
 정신적으로 성숙된 인격이 없이 늙어지면 주름살  
 과 흰머리만 남을 뿐이다. 잠언에 '흰머리는 늙은  
 이의 면류관'(잠언 16:31)이라고 하였지만 성숙된  
 인격을 이루었을 때의 일이다. 젊을 때는 자꾸자  
 꾸 배워야 한다. 젊을 때 동서고금의 고전을 읽어  
 야한다."  
 (류영모, 『다석어록』)

지난 4월에 전북 고창에서 윤정현 길벗으로부  
 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고창군(군수: 윤기  
 상) 군립도서관에서 5월부터 노자(老子) 『도덕경』  
 강좌(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를 시작하였다는 것

이다. 교재는 다석 류영모 선생의 번역본인 『늙은  
 이(老子)』라고 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문고  
 전 강좌 및 고전 읽기를 권장하여 고창에 인문학  
 의 진리 정신을 활짝 꽃피우는 것이 고창 유 군수  
 의 군정(郡政)의 소신이라 하였다. '나라 사랑의 바  
 른길을 아는 분이 고창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연 자원은 없어도 인물 자  
 원이 있다는 이 나라에 나라를 맡길만한 인재가  
 없어 누구는 눈감고 투표를 하였다고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몇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  
 가 달라졌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바로 되려면 민도(民度)가 높아져야 한다. 더구나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루자면 마하트마 간디의 아  
 힘사(Ahimsa) 정신을 드높여야 한다. 6.25 군가(軍  
 歌) 가사처럼 철천지원수와 손을 잡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아들을 죽인 적구(赤狗: 공산당의 앞  
 잡이를 낚잡아 이르는 말)를 아들로 받아들이 손양원  
 목사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진리 정신[얼나의 사  
 랑]'을 길러야 한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고모부  
 도 친형도 가차 없이 죽이는 부덕(不德)한 북한의  
 집권자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것은 한얼님이 주시는 열심(道心)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전북의 고창 군민들처럼  
 고전을 스스로 읽고 배워서 진리 정신을 길러 대  
 통령의 평화운동을 지성으로 뒷받침해야만 이 나  
 라 금수강산에 평화가 너울너울 춤을 추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류영모는 한얼님의 뜻  
 을 받드는 귀일(歸一)에 힘쓰면 평화통일이 저절  
 로 이뤄지지만 내 뜻대로 통일하겠다고 싸움만 일  
 어난다고 말하였다. ☯



「신경림의 승일교타령」, 34X106cm, 꽃들 이미경(1918~)의 글씨(1994년 작)